

WINTER 2018 Vol.29

지심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육신보다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세계.
<사회봉사단 지심회>의 염원입니다.

CONTENTS

- 04 사회봉사단 지심회 소개
 - 06 지심회 대표 신년 인사말
 - 07 지심회 운영위원장 신년 인사말
 - 08 2017년 월별 봉사 및 후원 활동 TIMELINE
 - 10 자리아타 ①
제 39회 사회봉사단 지심회 정기 무료의료봉사
 - 16 자리아타 ②
사회봉사단 지심회 쌀·라면 희망나눔 봉사
 - 20 지심회 특집
제 17회 지심회 이각큰스님 초청 산중 힐링법회
 - 24 법회유람기①
여의도 국회 불경번역반 수료를 하며 글·몽향 전초이
 - 27 법회유람기②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글·루나 한수연
 - 30 까치와 보리수
 - 36 법거 밀어주기
 - 37 2017년 지심회 운영비 결산
 - 38 우리 함께해요
- 본 <지심회 소식지>는
사단법인보리수 산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도서출판 지혜의눈의
후원과 재능기부로
제작 발행됩니다.



사회봉사단 지심회

■ 대표

보만스님

■ 연혁

- 2002.02. 지심회 前身 이각회 창립
- 2006.10. 사회봉사단 지심회 발족식
- 2011.03. 지심회 내규 및 운영위원회 결성
- 2015.03. 정관설립
- 2016.11. 경북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17.06. 지심회 사무실 개소

■ 목적

- 인종, 국가, 종교, 지역,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평등한 봉사실천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정신적 후원
-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증, 자살, 폭력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인원

총 230명(2018년 1월 현재)

■ 주요사업

- 교도소 인성교육
- 군부대 인성교육
-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예방 심리상담
- 지역 정기 의료봉사
- 계간지 발행
- 독거노인 지원 및 무료 식사봉사

■ 지심회 임원진 구성

운영위원장 침각 심영구

부위원장 응천 김건상 010-3340-4673

부위원장 초의 이선주 010-8694-0546

사무부장 정각 김태구 010-2779-5563

총무부장 미지 이미자 010-2250-1056



■ 세상을 밝히는 지심회의 가족이 되시려면

1. 전화 또는 지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해주세요.(지면 신청서는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원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발송해드리는 회원증을 수령합니다.
3. 신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회비 납부 회원은 템플스테이 등의 행사에서 우선 신청권을 가지며 연말정산용 기부금내역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회원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1. 자비회원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소정의 후원금을 내고 활동하시는 회원입니다.

2. 봉사회원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3. 준회원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회원의 자격은 없습니다(미성년자 등)

4. 단체 및 기업회원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단 지심회 대표 보만스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심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후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회원님들의 가슴에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장아함경』 제2 유행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 만나보기 어렵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넷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스스로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다섯째, 위험에 빠져있는 이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정법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 정진하는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일이 오늘날 세상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정법의 포교에 더욱 매진하시어 불국정토가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대서원에 앞으로 보다 많은 원력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무시 이래로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 시작도 끝도 없다 하였지만, 속세의 법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지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물들지 않는 허공처럼 항상 청정하시길 바라옵고, 무술년에도 지심회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들의 스승님이신 이자각자 큰스님을 대신하여 지심회원님들께 감사와 가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기2562년 신정

보만 합장



좋은 분들과 함께 정유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늘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이각큰스님과 도각사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2018년 무술년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심회 회원님들 '우리의 영원한 메시지 불멸'을 공부하며, 봉사 활동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이 매사에 전도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됨을 알고, 올바른 지혜를 증득(證得)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심회 회원들님과 도각사의 모든 도반님께서 괴로움이나 즐거움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사회봉사단 지심회가 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지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회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하여 불심을 수행하며 회원님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여 지심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지심회 및 불교교리 강좌에 많은 불자님께서 동참하여 진정한 나를 찾았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회원님들과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히 지내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사회봉사단 지심회 운영위원장 침각 합장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지심회 임원진과 도각사 교리강좌에서 공부하는 불자님들의 신년 덕담 영상편지를 시청하실 수 있어요.

2017년 월별 봉사 및



청송·상주교도소 수감자 면회
지심회 연간활동계획 운영진 회의
홀몸노인 동계난방용품 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계간 지심〉 25호 출간지원

1

2



오태저수지 환경미화봉사
불법 사냥&늑시 금지 캠페인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헌병전대 인성교육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비영리단체공익활동지원 중간보고서 회의(경북도청 제출)

8

7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문경시 소재기업 〈계간 지심〉 후원
〈계간 지심〉 27호 출간지원



제 39회 상주시 화북면 정기무료의료봉사
상주시 시민공개 토론회 참석(사회복지분야)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9

10

17주년 힐링법회
사회봉사단 지심회 총회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후원 활동 TIMELINE



제 37회 상주시 노인복지회관 정기무료의료봉사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3

4



상주시 소재 기업 자심회지 후원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계간 지심〉 26호 출간지원



제 38회 문경시 연강문화센터 정기무료의료봉사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6

5



오태저수지 환경미화 봉사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교육참석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홍서기 홀몸노인 난방용품장착 후원
〈계간 지심〉 28호 출간지원

11

12



교도소 인성교육후원
오태저수지 환경 미화 봉사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후원
홀몸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희망나눔행사

제39회 사회봉사단 지심회 정기 무료의료봉사



일시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경북 상주시 화북면 화북종합복지회관
참석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40명 이상 **대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 200명
주최 사회봉사단 지심회
협력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청주 경희보리수한방병원, 상주 도각사, 문경시청, 화북종합복지회관
후원 영진약품, 상생촌

상주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사회봉사단 지심회(대표 보만스님)가 9월 10일 상주시 화북면 화북종합복지회관에서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과 청주 경희보리수한방병원 협력으로 '제39회 지역 정기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기존의 봉사와 달리 양한방 협진으로 기획되어 종교인과 의료인 등 4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상주 도각사, 문경시청,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청주 경희보리수한방병원, 상생촌, 영진약품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영진약품은 영양제 수액 전량후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참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미지 이미지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운 의료봉사였습니다.
스님,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도반님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보람 있는 의료봉사였습니다.

상주시청 윤순애

“고마와요 고마와요.”
“어디서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다 오셨데.”
아마도 그분은 이런 수액봉사가 처음이셨나봅니다.
우리 지심회가 이런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자부심이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봉사였습니다.

상주시청 이상연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께서 새벽밥을 드시고 한 분씩
화북면 종합복지회관으로 모이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를 바라보시는 표정들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시는 떨떠름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심회원들이 수액 링거를 꺼내서 준비하고,
흰 가운을 입으신 의사 스님 두분이 나타나시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분들이 차례차례 나타나시자 믿음이
가시는지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켜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화정 이영채

장소가 장소인지라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봉사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힘들지
않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스님들을 비롯해 도반님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초의 이선주

길었던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행복으로 바뀌는
의료봉사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한걸음 한걸음 지팡이에 의지해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에는 모두 웃으며
돌아가셔서 뿌듯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합장









사회봉사단 지심회 쌀·라면 희망나눔 봉사



일시 2017년 12월 10일 일요일 10:00 ~ 14:00 **장소**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참석** 봉사자 20명
주최 사회봉사단 지심회
협력 상주 도각사,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후원 상생촌,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청주 경희보리수한방병원

상주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지심회(대표 보만스님)가 상주시 계림동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2017년12월 10일 계림동사무소에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행사는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상주 상생촌 그리고 사회봉사단 지심회 회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선정은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며, 상생촌 유기농쌀 1000kg, 라면 2000개를 봉사자들이 직접 각 가정에 찾아가 전달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심영구 지심회 운영위원장은 '사회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나눔봉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눔봉사활동을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전원 동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미 정경숙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심회 회원님들과
웃으며 함께 봉사활동을 해서 추운 줄도
모르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봉사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심회 화이팅!



화정 이영채

멀리 강원도에서 달려왔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봉사하게 되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참석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주시청 이상연

‘할머니 계세요?’라고 몇 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대답을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 다시 큰소리로
 ‘라면, 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시간만
 더 있으면 청소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상주시청 이영숙

이번 행사에 나눠드린 쌀은 ‘유기농 쌀 브랜드 상생촌’에서
 올해 수확한 유기농 햅쌀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짐을
 나르고 아파트를 직접 찾아다니며 전달하는 봉사활동에까지
 참여하시는 운영위원장님을 보고
 ‘보여주기식 봉사활동’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청 정춘희

이번 나눔행사를 하면서 라면을 받았을 때 너무도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라면 1박스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놓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상주시청 김미준

쌀과 라면을 직접 전달해보니 우리 주위에는 정말 경제적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행사에 참여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침각 심영구

앞으로도 사회의 눈과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나눔행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추운 날씨도 잊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각 김태구

쌀과 라면을 직접 나눠드리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큰소리도 불려도
택에 많이들 안 계셔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미지 이미자

'아! 라면이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어린아이의 기쁨에 찬
표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화 빈영순

'마침 쌀이 떨어졌는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상주시청 윤순애

바쁜 일상을 제치고 나눔행사를 위해 달려와 주신 전국
각지의 지심회원님들은 물론 상주시 계림동사무소 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사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역시 마음을 합하면 큰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서 기뻛고, 준비하신 지심회 임원진
분들 근접하셨습니다.

초의 이선주

나눔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라면'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했기에 홈쇼핑, 라면대리점, 라면회사 등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전화해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에 소중함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해서인지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뜻깊은 봉사였습니다.

제17회 지심회 이각큰스님 초청 산중 힐링법회



일시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14:00~ 29일 일요일 장소 상주시 성주봉 자연휴양림
주최 사회봉사단 지심회
후원 사단법인 보리수 협찬 상생촌

지난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지심회 17주년 기념 이각큰스님 초청 산중힐링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지심회원이 일년에 한번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힐링법회에는 이각큰스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도각사 대중스님들과 40여분의 지심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지심회 총회를 통해 연말결산과 활동내역을 공지하고, 이각큰스님의 법어를 청해 들었습니다. 큰스님께서 법문의 끝에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뜻을 알리는 지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봉사활동과 인성교육의 기반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지심회 운영위원진에서 추천하고 도각사 대중스님들의 만장일치로 권필숙, 김태구, 한수연, 황병호, 김미준, 최재호 회원님과 상생촌, 삼일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기업회원에서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시는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오는 2018년 한 해에는 지심회가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마음 공부와 수행, 그리고 사회봉사가 하나되어, 얻은 만큼 나누고 배운 만큼 알리는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거듭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서원과 열정으로 지심회를 일으키신 도각사 회주 이각큰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나가는 침각 심영구 운영위원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음양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기농 쌀 브랜드 상생촌 대표님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지심회 임원들 및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법문을 해주시는 보리수 이사장 이각큰스님



2017년 지심회 표창장을 받으신 지심회원들과 이각큰스님.

왼쪽부터 권필숙님, 김태구님, 한수연님, 황병호님, 김미준님, 최재호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7년 지심회 기업회원 표창장을 받으신 상생촌 대표 한상철님.

* 이날 참석하지 못하신 기업회원 <삼일감정평가법인> 지사장 박재국님께는 지심회 대표 보만스님께서 표창장을 전달하셨습니다.





여의도 국회 불경번역반 수료를 하며

글 · 몽향 전초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몽향 전초이입니다.
도각사 다닌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기초번역반을 수료했다니 반성하게 됩니다. 도각사 첫 방문기를 찾아보니 2010년 8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도각사에 다닌지는 7년이나 되었지만 띄엄 띄엄 다니다 보니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을 보며 반성도 하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격려해주는 스님, 도반님들이 계셔서 기초번역반을 무사히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기초번역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4년이 넘게 불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제대로 불경을 공부해본 적이라고는 대학생 때 대불련 활동을 하며 '천수경' 스터디를 조금 한 것 빼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불경기초반을 수료하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예습도 해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록 복습을 제대로 못해 도로아미타불이 된 듯하지만, 경전 공부에 눈을 뜨게 해주신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접수대에서 (좌)몽향 전초이 (우)화현스님

어렵게만 생각하고 혼자서는 절대 가까이 가기 힘든 불경을 스님들께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차게, 매번 열정적으로 알려주셔서 불경에 한 걸음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번역 내용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불경을 왜곡된 해석이 아닌 바른 해석으로 제대로 접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길을 스님, 그리고 도반님들과 함께 가니 용기도 나고 즐거웠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보는 제 정신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며 글을 마칩니다. 합장.



석탄일 연등을 달고 있는 몽향 전초이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글 · 루나 한수연



정기 의료봉사 활동 후 한 컷! (좌)한수연 (우)부경미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사는 거 정말 힘들어, 고생이야. 정말 죽지 못해 살아”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아, 드디어 쉴 수 있어!’ 라고 하며 안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실상 죽음을 반기지 않는다는 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죽음이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내 ‘몸’이 내 ‘자신’임을 굳게 믿으며 내 몸을 먹여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적스님께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연세안심프롤로의원을 알게 되어 스님께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인연이 마중물이 되어 저는 그윽한 향기가 퍼져 나오는 도각사로 날아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번듯하게 지어진 사찰의 대웅전, 그 안의 불상 앞에 엎드려

108배, 1000배를 하고 뜻도 모르는 경을 외우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뤄지기에는 나의 소원이 너무나 사적이었고, 부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학입시 불합격과 같은)불행을 겪게 하심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일 년에 한 번 뿐인 등을 다는 일도 5만원이 없어 부처님 앞에 삼배 드리기가 죄송하고, 주지스님 뵙기 죄송한 마음에 절에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용어도 배우고 싶지 않았고, 그 수많은 불경 중에 하나도 외울 줄 아는 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여만 가는 오해들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자 각자 큰스님께서 설해주시는 부처님의 가리킴은 저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불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완전히 바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찰과 그보다 더 많은 스님들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제일 처음 도각사를 찾은 날, 월가스님께서 설해주시는 '생로병사'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저는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육진? 무명? 무아? 이게 무슨 뜻이지?' 지켜워서 하품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동하여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실체가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 그 자체임을 알았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자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수년 간 세상을 등지고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해 얻는 도가 아니라, 불전함에 넣는 돈의 금액에 따라 수승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유하고 '이해'하고 나니 마음속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보만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종교(宗敎)의 의미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종교의 '종(宗)'은 마루, 즉 나의 근본, 실체를 뜻하므로 종교란 이 삶을 살고 있는 주체, 실체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기복신앙적인 행위와 풍습으로 '종교'라는 단어가 불편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랜 시간 쌓아온 잘못된 오해의 기억들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늘 만족하지 못해 욕심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실체와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이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나의 견해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니 지옥 같은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는 궁극적인 두려움도 사라지고, 억지로 바꿀 수 없는 삶의 태도도 그저 자연히, 그리고 서서히 스님들의 견해에 물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도각사에 발길이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 모습이 꿀을 찾아 열심히 날갯짓하는 한 마리 꿀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큰스님과 대중스님들께서 전해주시실 수 있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도각사에 있습니다. 지혜의 꿀을 머금은 꽃에서 퍼져 나오는 향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이 곳을 찾은 이후로 늘 그 꽃향기가 그립고, 스님들께서 설해주시는 꿀 보다는 달콤한 지혜의 말씀에 목말라 자꾸만 뽕뽕 도각사로 날아드나 봅니다.



정기 의료봉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루나 한수연님



까치와 보리수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도서출판 지혜의눈, 사회봉사단 지심회,
연세안심프로로의원, 경희보리수한방병원, 심리상담센터 안심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도각사 정기법회 봉행

도각사에서는 불자님들을 위해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여 지금 이 순간과 비교해보는 도각사 정기법회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귀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이번 6차 불교 교리강좌는 기초반, 중급반, 지도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불교의 참된 진리를 찾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차 교리강좌 수료식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에 봉행합니다.

* 법회 전날 / 당일 숙박 가능합니다.

국회 생명사다리 자살예방 상담봉사

매달 넷째 주 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생명사다리 자살예방상담봉사에 스님들께서 상담사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도각사 스님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니 주위에 널리 알려 자살을 생각하는 외로운 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마음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국회생명사다리 자살예방상담
수신자부담 전화
080-788-0479

불기 2562년 인등 접수

불기 2562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도각사 인등을 접수받습니다. 인등은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불사금은 한 해 1인당 6만원입니다. 인등기도는 법회일에 함께 봉행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이 법당의 작은 연꽃으로 빛나게해주세요.

접수 : 지심회 관리 빈영순
010-3211-8197

도각사 정기법회 시간표

법회종류	교리 기초반	교리 중급반	지도자반	유마경반
법회 일시	매달 두 번째 / 네 번째 토요일 14시	매달 두 번째 / 네 번째 토요일 16시	매달 두 번째 / 네 번째 토요일 19시	매달 세 번째 토요일 20시
법회 주제	불교 기본교리	심화교리	불교지도자 과정	유마경 경전번역
강사스님	월가스님	화현스님	보만스님	이각근스님
참석자격	누구나	기초반 수료자	중급반 수료자	중급반 수료자
수료요건	총 22강 중 12강 이상 이수	총 22강 중 15강 이상 이수		



청송교도소 법회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은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이각근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가 열립니다. 차가운 벽과 철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피어나는 귀한 법회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를 했을 뿐, 모두 우리와 똑같은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외로운 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법회 참석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심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 법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회 참여 및 후원 문의〉

- * 1월, 2월은 동계 방학으로 청송, 상주 교도소법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참석 또는 간식 후원문의는 법회 일주일 전에 연락해주세요.
- * 문의 지심회 대표전화 054-541-2057



상주교도소 법회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상주교도소에서 도각사 주지스님이신 향수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가 봉행됩니다. 도각사 스님들만의 놀라운 법문을 듣고자 하는 교도소 내 불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강당에 모입니다. 세상의 가장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는 불자들에게 여러분의 자비를 선물하세요. 법회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며, 법회 참석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법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법회 봉행

2017년 12월부터 서울 지역법회 장소가 여의도 국회에서 등촌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경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불자들을 위해 불교의 기본이 되는 교리를 배우고, 한역경전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풀이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왜곡된 불경의 개념을 바로 잡고 불교교리를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지역법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송원빌딩 1층 카페 루씨엘(지하철 9호선 등촌역 하차 1번 출구)

02-2088-7880

서울법회 담당 최근성

010-5410-8120



사회봉사단 지심회



난방용 화목 입고

도각사에서 화목으로 겨울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난방 및 온수까지 가능한 보일러로 교체한 이후 도각사에 방문하시는 불자님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화목을 구입하는 것부터 엔진톱으로 나무를 절단하고 도끼로 쪼개어 경운기로 운반하는 것까지 스님들께서 직접 작업하고 계십니다.

도각사를 찾아 오는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용 화목을 보시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지심회 총무부
010-2250-1056



38회 의료봉사 실시

지난 6월 11일 문경시 영강문화센터에서 상주 도각사 및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과 청주 경희보리수 양·한방협진병원의 협력으로 65세 이상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문경시청 시장님이 하 공무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종교인과 의료인 등 3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의약품 및 간식을 후원해주신 영진약품, 상생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수준 높은 의료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회 의료봉사 실시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사회봉사단 지심회(대표 보만스님)가 지난 9월 10일 상주시 화북면 화북종합복지관에서 도각사 및 점촌 연세안심프롤로의원과 청주 경희보리수 양·한방협진병원의 협력으로 65세 이상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상주시청 공무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종교인과 의료인 등 4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의약품과 간식을 후원해주신 영진약품, 상생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수준 높은 의료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심회 창립 17주년 기념 성주봉 산중 힐링법회

지난 가을 사회봉사단 지심회가 1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심회 창립법회는 매년 모든 지심회원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지심회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산중힐링법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중힐링법회는 10월 28일(토) 성주봉 자연휴양림에서 도각사 회주 이각근스님을 모시고 직접 법문을 듣고 14분의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지심회 운영위원회 이하 임원진 여러분 근념하셨습니다.

청송교도소 불서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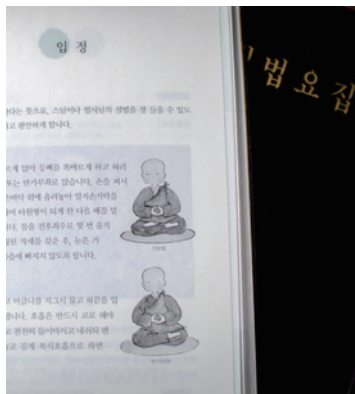
지난 10월 1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금강경 200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법회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배부하였던 금강경이 부족하여 불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10월 정기법회가 끝난 후 도각사 회주스님이신 이각근스님께서 지심회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금강경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법공양에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쌀·라면 희망나눔 봉사

12월 10일 혹한기를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유기농 쌀 1000kg, 라면 2000개를 회원 20여 명이 직접 가가호호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혜자는 상주시 계림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이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출판 지혜의눈



도각사 법요집 제작

절에 가면 법당에는 항상 법요집이 비치되어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각사에는 이렇다 할 법요집이 없어 예불을 모시거나 함께 법회를 봉행할 때에도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의 법요집을 참고하려니 기복적인 기도가 주를 이루는 등 그 내용이 도각사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도각사 법요집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각사의 역사도 첨부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수행하는 이를 위하여 책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공덕입니다. 많은 분들의 보시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심회 소식지 제작

이번 호부터 계간 지심과 지심회 소식지를 분리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계간 지심을 배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컨텐츠 잡지 공모전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따로 모아 지심회 소식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심회 소식지는 1년에 두 번 모든 지심회원들에게 발송되는 무료 잡지입니다.

사단법인 보리수에서 수행과 포교, 그리고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회봉사단 지심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동호	김미준	김형기	손금열	윤순애	임윤희	최한승	황병호
강문희	김복언	류종수	손석우	이미자	장미화	최향길	황주은
고정정보통신(주)	김선옥	마이프린팅	송정호	이상선	전초이	최현상	무기명
곽성일	김애란	박미정	신보라	이상연	정경숙	추판줄	
권필숙	김재국	박용학	신양숙	이선주	정금숙	푸른향기	
김건상	김재주	박재국	신영훈	이연희	정미경	한수연	
김경숙	김정심	박종진	오승준	이영주	정정화	한일국	
김광우	김종길	박진경	오태순	이영채	정택규	한지호	
김동원	김태구	박춘식	우영위	이원섭	정화영	한태용	
김명규	김한송	박현수	운주사	이준하	조성경	함정복	
김문주	김해옥	빈영순	유미형	이형운	최근성	홍도진	
김미경	김현숙	서보원	유찬규	이효정	최윤희	홍미규	

2017년 7 ~ 12월 무기명 포함 총 455명
15,420,850원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꼭 알려주세요!

2017년 한 해 동안 큰스님 요사채 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정숙	300,000원	박재국	6,000,000원	이미자	10,000,000원	추판줄	500,000원
권필숙	4,000,000원	우진호	4,000,000원	이승자	200,000원	황병호	2,000,000원
김선옥	1,000,000원	신양숙	1,000,000원	이영채	2,000,000원	무기명	15,000,000원
김예민	1,000,000원	심영구	5,000,000원	전초이	1,000,000원		
류종수	1,000,000원	윤순애	100,000원	정경숙	20,000,000원		
박송희	500,000원	이강재	100,000원	최근성	4,700,000원		

2017년 지심회 운영비 결산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지심회비	32,423,137원	22,104,112원	10,319,025원
도청지원금	8,452,000원 (자부담 5,452,000원 포함)	8,442,390원	9,610원

*지심회비 잔액 중 5,452,000원은 경북도청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단법인 보리수에서 차용한 금액입니다.

지심회 연간 지출 세부 내역

지출 항목	사업 지출총액	후원금 및 물품	지심회비 지출	경북도청 지원금 지출
석가탄신일 행사비	2,530,000원		2,530,000원	
영양수액 의료봉사 ¹⁾	40,701,100원	36,000,000원	2,208,850원	2,492,250원
인성교육 및 초청강의 ²⁾	6,254,027원		3,362,027원	2,892,000원
국회생명사다리 자살예방상담	1,125,550원		1,125,550원	
계간 지심 인쇄 및 발송비 ³⁾	4,877,110원		4,877,110원	
희망나눔봉사 ⁴⁾	4,452,070원	800,000원	890,070원	2,762,000원
큰스님 초청 힐링캠프	5,489,200원	490,000원	4,999,200원	
CMS 수수료	456,225원		456,225원	
무료 식사 봉사	413,000원		413,000원	
사무실 운영비	893,020원		596,880원	296,140원
총액	67,191,302원	37,290,000원	22,104,112원	8,442,3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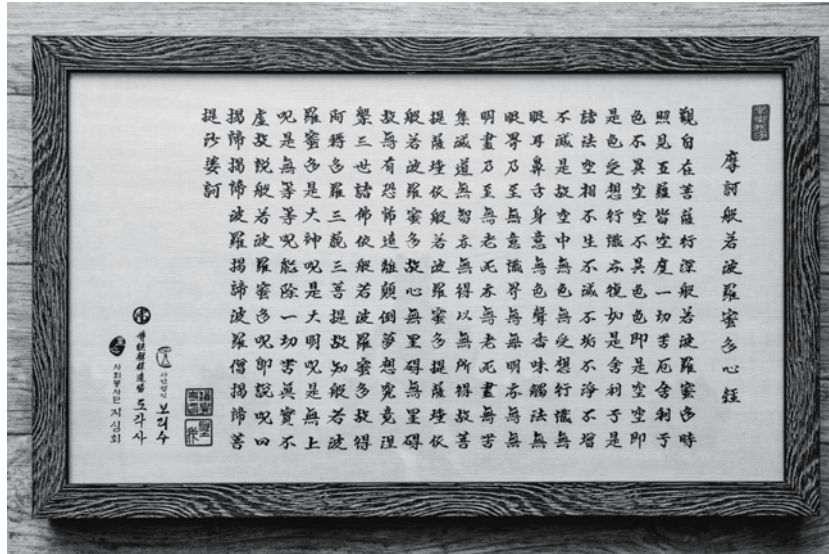
1) 총 3회, 65세 이상 노인 600명 대상, 봉사자 100명 참석. 위 지출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세안심프
롤로의원과 경희보리수한방병원에서 의료진을, 영진약품·아주제약·휴온스에서 의약품, 유기농 쌀 브랜드 상생촌에
서 쌀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주교도소·청송교도소 및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자살예방 상담 및 인성교육 매월 진행.

3) 총 3회 발간·발송.

4) 유기농 쌀 브랜드 상생촌에서 유기농 쌀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심회 장학기금 모금



도각사 성아스님의 친필로 완성된 반야심경 다포 액자의 보시금은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사회봉사단 지심회>에서 모금하는 <지심회 장학기금>에 전액 기부되며,
장학금은 매 해 분기별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학생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어려움을 딛고 곳곳이 자라나는 부처님의 어린 싹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자비가 꼭 필요합니다.

작품 한 점당 15만원

[문의] 사회봉사단 지심회 총무부 010-2250-1056

후원계좌 : 농협 301-0202-8922-41 사회봉사단 지심회

- * 성아스님의 친필 반야심경 원본 작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 집에서는 쓰지 않지만 남들에게 필요할 만한 물품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물품은 연말 바자회를 통해 지심회 장학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 사단법인 보리수 도각사

교도소 법회 간식 후원

매달 상주교도소와 청송교도소에서 이각큰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로운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시는 큰스님의 귀한 법회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심회 사무실로 미리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지심회 사무실 054-541-2057
지심회 총무부 010-2250-1056

* 농협 301-0202-8925-51 사회봉사단 지심회

큰스님 요사채 불사 안내

도각사 회주이신 이각큰스님께서 기거하실 요사채가 마련되지 못하여, 참 오랜 세월 동안 먼 곳에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제자들과 불자들의 염원으로 도각사에 요사채를 불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원력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도각사 054-541-2057

* 농협 301-0216-5422-31 사단법인 보리수

나와 세상, 그리고 삶에 대한 설명서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불멸1

이각스님 저 | 2014.04.01 개정판 |
627페이지 | 정가 25,000



세상 밖에서 우리의 상식을 인정없이 파헤치는
이각스님의 진실을 향한 연설

교보문고 2년 연속 스테디셀러 『불멸1』 개정판

부처님께서 왕좌를 버린 후, 분소의를 걸치시고 발우를 들고 평생을 걸어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불멸1』은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느끼고 싶은 선종자善種子가 남아있는 한 『불멸1』은 대를 이어 읽힐 보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 편집부

도서출판 **지혜의봄**

10분의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직접 만든 글방입니다. 오직 불서만을 고집하는 작지만 깊고 맑은 우물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찾는 목마른 자에게 해안을 선물하는 부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定慧 불경연구원 사경집

금강경 1 金剛般若波羅蜜經

올바른 경전 번역문의 부재로 긴 세월을 방황하고 허비했던 내 지난날의 외로웠던 수행을 떠올리며 인류의 최고이자 최후의 과제인 자아성찰을 함에 있어 이 사경집이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문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이어 내 본래의 모습과 그 위대함에 감동하는 수행자의 환희심이야말로 근거 없는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하는 이 시대의 불교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서문 가운데

번역 정혜불경연구원장 이각스님 | 초판 2016.09.10 | 200페이지 | 정가 30,000 | 지혜의논

* 본 금강경 사경집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권과 해설집은 2018년 출간 예정입니다.

* 사경집에 실린 번역문은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글자의 뜻을 빼거나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역을 하더라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번역문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번역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알기 쉽고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집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
전화 054-541-2057 팩스 054-541-9030
이메일 bodhicaksu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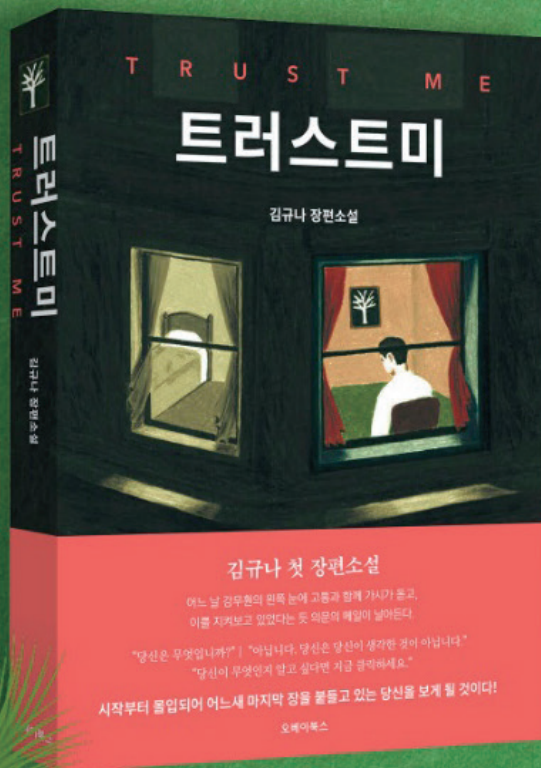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지혜의논 도서 구입처로 이동합니다.

* 소설가 김규나는 5년차 지심회원으로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섬세하면서
울림이 큰 문장,
인간과 삶을 조망하는
시선이 따뜻한 작가

김규나 「트러스트미」

기발하고 놀라운 서사
위로를 주는 사랑 이야기



“슬픔니까?”

목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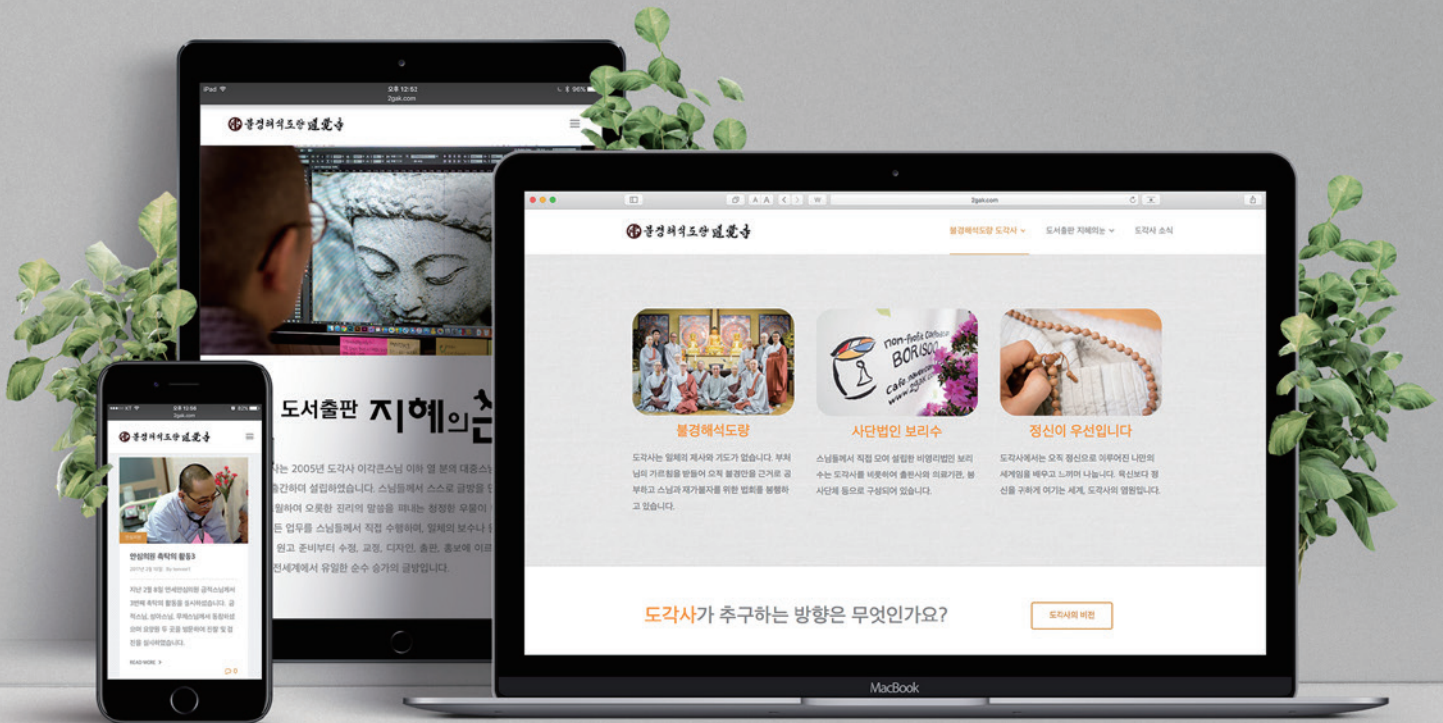
“그렇게 슬픔니까?”

이 폐허가
당신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베이북스

www.2gak.com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에 모두 최적화된 도각사 / 도서출판 지혜의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사단법인 보리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와 <도서출판 지혜의눈>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도각사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오픈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도각사 소개, 연혁 및 활동 내용, 그리고 강의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각사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자연이
제어치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건강한 생명력이
다시
사람을 도울거라는
착한 믿음으로
상생촌은 오늘도
농사를 넘어
생명을 짓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게”

상생촌은 ‘자연과 사람들이 더불어’ 건강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제초제와 농약 대신, 논에는 우렁이를 넣어줍니다.
정성과 기다림으로 길러낸 유기농쌀. 상생촌은 가족에게 먹이는 건강한 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친환경쌀을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유기농쌀 전문 브랜드입니다.

상생촌 농업철학

- 안전하고 깨끗한 벼의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 상생촌에서 직접 육묘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 벼종자를 소독할 때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살균하는 온탕침법으로 소독합니다.
-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논에 우렁이를 방사합니다. 잡초는 우렁이의 먹이가 되고
그 활동은 다시 토양을 살리며 그렇게 튼튼히 자란 벼는 병충해를 굳건히 견뎌 다시 사람들에게
건강한 쌀을 전해주는 것이 우렁이 유기농법의 큰 장점입니다.
- 가을에 수확한 벼들은 친환경인증절차를 철저히 거쳐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벼만 수매하여
도정하기 때문에 농약친 일반쌀과 섞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쌀만 도정하는 소규모 정미기계로 쌀을 수시로 도정하여,
소비자분들께 신선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쌀을 제공해드립니다.

더불어 건강하게

상생촌





농사장인匠人
한 상 철 대표

한국신지식인 제08-109호
한국유기농협회장상 수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Dr.Rice “유산균 쌀” 닥터라이스 Dr.Rice

상생촌 닥터라이스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고 보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상생촌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이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맛있는 <오색발효현미>를 만듭니다.

- Dr.Rice는 무농약 오색현미를 유산균 발효공법으로 발효합니다.
- 발효된 오색현미는 섭취 시 소화가 잘 되고, 오색현미의 영양분이 쉽게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 Dr.Rice는 물에 미리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식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 가족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당뇨예방농법 기능성쌀[특허 제 10-1520296호]



| 상생촌 프리미엄 제품

상생촌은 친환경 · 무첨가 식품,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원재료의 좋은 영양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쌀가공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기농 흑미차



7년 숙성 흑초



유기농 흑미조청

삶이 힘든가요
많이 지쳤나요

080-788-0479

국회생명사다리

24시간 전화상담센터



지금 전화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 매월 네 번째 화요일 12:00~15:00까지 보만스님과 월가스님께서 전화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봄날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벚 메이데이 올림

민사·형사·가사·행정 송무 및 자문 / 노동·산재 / 입법 컨설팅 / 법 교육 / 공익활동

유재원柳在垣 대표 변호사 / 노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미국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공인노무사시험 제20회 합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 서기관(노동법 전담)

오세위吳世偉 수석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원장
근로복지공단 재활의료이사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대한입법연구원

입법용역·정책연구·입법제안서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사회봉사단 지심회 가입신청서

■ 회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법인은 사업자 번호)
이메일		연락처	
주소			

■ 후원 방식

후원 방식 및 후원금 (0 표 해주세요)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자비회원 ()	월 후원금 () 만원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CMS 정기후원 해주시는 회원입니다.
	봉사회원 ()	일시 후원 또는 비정기 후원 해주시는 회원입니다. 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202-8918-11사회봉사단 지심회
	준회원 ()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회원의 자격은 없습니다.(미성년자 등)
	단체회원 ()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회원입니다.

■ 후원금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지정출금일 매월 ()일

CMS 출금이체 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 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이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 결제(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나이스페이먼츠㈜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서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업체 명을 인터넷홈페이지, SMS,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자(SMS)발송 동의

-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상기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CMS 출금이체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문자(SMS)발송에 동의하며, 자동출금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CMS 신청자(이름) _____서명

본인은 사회봉사단 지심회의 정관을 열람, 숙지하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였으며, 회원의 전(全)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사회봉사단 지심회의 회원으로 가입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심회원 신청자(이름) _____서명